

스마트키 깜빡했다 낭패 잇단 차량털이에 '앗車車'

점단 전자장비를 갖춘 차량이 늘면서 '차량털이'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

예전에는 무작위로 차량의 잠금 여부를 확인한 뒤 내부의 금품을 훔치는 줌도둑이었다면, 요즘은 고급 수입차 등의 사이드미러 접힘 여부를 살펴보고 스마트키 터치센서를 눌러보는 방식 등으로 차량을 통째로 훔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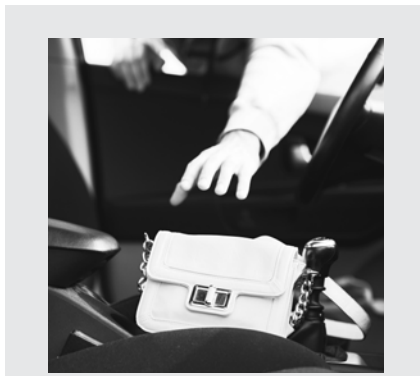
특히 차량 내에 스마트키가 있으면 시동이 걸린다는 점을 악용해 단순한 차량털이에 그치지 않고, 차량 자체를 훔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총 3879건의 차량털이 범죄가 발생했다. 연평균 775건으로, 하루에 2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차량털이범 중 상당수는 10대 청소년이다.

기존에는 도로변이나 주차장 등에 주차돼 있는 차량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차량을 잠금 여부를 확인하고, 차안에 보관된 금품을 훔치는 범죄 유형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범죄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차량털이범들은 고급 수입차와 신형 국산차는 잠금이 해제된 경우 사이드미러가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몸에 휴대만 하고 있으면 차량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시동까지 켤 수 있는 스마트키 시스템이 장착된



차안에 키 놔둬 문 안 잠겨 청소년 절도 주요 타깃으로 광주 차량털이 하루 2건꼴 운전자들 꼼꼼한 주의 필요

차량이 범행의 표적이 되고 있다. 차량 내 스마트키가 있을 경우 차량 자체를 훔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털이에 나선 10대 가출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훔친 차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거나 연료가 떨어지면 버리고 또 다른 차를 훔치는 범죄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된 차주의 경우 도난보험 미가입시 절도범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해금에 배상을 받아야 하는 등 법적다툼까지 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24일 차량 7대를 훔치고, 차량 내에 있던 현금 11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16)군 등 10대 5명이 구속됐는데, 이들이 훔친 차량 중 모하비 SUV 차량의 경우 파손이 심각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차량에서 속삭을 하며 사고가 나거나 기름이 떨어지면 외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다시 차를 훔쳤다. 범행 대상은 스마트키 시스템을 갖춘 불보와 폭스바겐, 도요타 등 수입차였으며 훔친 차량 내부에는 모두 스마트키가 있었다.

차량절도 피해자 대부분이 자신의 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키의 작동법은 제조사마다 제각각인데 일부 운전자의 경우 작동법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했다.

실제 일부 피해자는 스마트키가 차량 내 있으면 문이 잡기지 않는데도(미국 포드사 등 일부 차량은 제외), 이를 모르고 보조 스마트키를 차 안에 보관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절도범들이 단순히 잠금여부만 확인한 뒤 차량내 물품을 훔쳐갔다면, 요즘은 스마트키를 사용하는 차량이 많아지면서 차량 도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차에 절대 스마트키를 놔두지 말고, 하차 후엔 차문이 잘 잠겼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구급차 출동 준비 만전 광주시 북구 보건소 직원들이 27일 동절기 신속한 응급구호를 위해 구급차에 비치된 환자 감시 장치 등 의료장비와 구급약품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유해 은폐 유감...악의적이란 생각 안해”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밝혀

해양수산부가 유골 추가 수습 사실을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에게 뒤늦게 알린 데 대해 가족들이 27일 “유감이지만 악의적 은폐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월호 미수습자 5명(남현철·박영인·양승진·권재근·권혁규)의 가족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가족들은 “지난 17일 장례를 하루 앞둔 시점이었나 해도, 세월호에서 유해가 발견됐다면 해수부 세월호현장수습본부는 저희에게 최우선으로 알려야 했는데 그

러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해 은폐” 보도가 나온 후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다”며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 이철호 본부장과 김현태 부분부장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은 “유해가 발견된 폐지장물은 세월호에서 이미 수색이 진행된 곳(객실)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때문에 장례를 앞둔 저희에게 그들이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악의적 은폐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목포신항에서 그들과 긴 시간을 함께 했던 저희는 두 사람의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 한다. 이미 시신없는 장례까지 치른 저희가 무엇이냐고 더 이해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목포신항에 더 머무르지 않겠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지만 세월호 수색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선체 직립과 미수습자 수색 과제가 남아 있고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과 실행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는 지난 17일 오전 세월호에서 나온 물건들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작은 크기 유골 한 점을 발견했으나 21일에서야 조은화·하도운양 어머니,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에게 이를 알렸고 다른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22일에 유골 수습 사실을 알렸다. /김한영기자 young@

어업 정지 처분 받은 中 어선 또 불법조업

서해어업관리단 2척 나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은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삼치 등을 불법 포획한 85t급 Y호 등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어업활동 정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기상악화를 틈타 지난 23~25

일 15차례에 걸쳐 삼치 등 어획물 9t(시가 9천만원 상당)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앞서 지난달 31일 어획량 축소 기재 혐의로 목포해양경찰서에 나포돼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으며,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 정지명령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5일 오후 8시께 신안군 흑산면 흥도 남서방 89km(우리 EEZ내 15km) 해상에서 조업하다가 우리측 어업지 도선에 나포됐다.

김옥식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중국 정부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청암대 전 총장 엄벌...사학 비리 척결해야”

시민단체 오늘 법원 앞 회견

순천 청암대의 사학비리 척결과 강 모 전 총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8일 오전 10시30분 광주고등법원 앞에서 열린다.

청암대 교수와 광주전남 시민단체로 구

성된 ‘청암대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광주 전남시민사회’는 교비를 횡령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강모(70) 전 총장의 항소심에 앞서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강 전 총장의 보석 불허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여교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강 전 총장은 지난 9월 5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교비 14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여교수 2명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돈 받고 수사 기밀 누설하고...성인오락실 투자

광주·전남 비위 경찰들 잇따라 구속

광주·전남에서 승진정탁을 대가로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누설하는가 하면 성인 오락실 등에 투자한 경찰관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7일 “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보성경찰서 A(49)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올해 초 보성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한 공무원으로부터 승진정탁을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A경위는 또 지난해 자신이 아는 업자가 보성군이 발주한 관급공사를 수수할 수 있도록 군 담당 공무원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2년 전에는 관급공사 업체를 수사하던

중 업체 관계자에게 수사진행 상황 등 수사기밀까지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A경위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고 관련 서류를 확보해 지난 24일 A경위를 체포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광산경찰서 소속 B경사를 구속했다.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B경사는 지역 내 한 성인오락실에 2000만원을 투자한 뒤 관련 업자로부터 수익금의 일부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경사가 투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오락실을 운영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귀가 도와준 순찰차서 술 취해 행패

○...술을 마시고 택시 기사와 시비를 벌이던 중 귀가를 위해 순찰차에 태워준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27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47)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46분께 광주 시 서구 치평동 한 주유소 앞에서 “왜 우리집 방향으로 안가나?”며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동승한 정모(28) 경찰관을 폭행한 뒤 순찰차 뒷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것.

○~경찰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날이었던 이날 인근 교통이 혼잡해 소란을 피우던 이씨를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 인근 택시 승강장으로 향하던 중 폭력을 휘두르자 결국 공무원행방해 혐의로 입건.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최 선 규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오천경매 H. 010-3605-5000